

건국 초기 동북 조선족의 혁명서사와 국가적 정체성의 확립*

—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를 중심으로

李海英**

- | | |
|--|---|
| I. 들어가기 | IV. 동만 조선인의 계급적 분화와 연변
조선족의 계급적 순결성 보장 |
| II. 건국 초기 동북 조선인의 국적과
조국관 및 김학철의 현실인식 | V. 『해란강아 말하라』의 한계와 김학철
문학의 탄생 |
| III. 중국공산당 영도 하의 조선인의
동만 항일근거지 건설 | VI. 결론 |

● 국문초록

이 글은 1953년 연변 조선족 자치구 창립 1년 만에 창작된 김학철의 장편소설 『해란강아 말하라』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중국의 건국 초기에 그러한 조선족의 혁명서사가 나타나게 된 정치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작가 김학철의 현실인식과 함께 그러한 혁명서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바를 구명하였다.

소설은 ‘9.18’사변을 전후한 시기, 중국 공산당 영도 하의 조선인의 동만 항일근거지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인 중공 당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 지도와 형과 같은 위치가 강조된다. 동북의 항일투쟁에 대한 조선인의 공헌과 기여는 중국 공산당과 건국 초기 중국 공산당에 의해 연변 조선족의 지도자로 발탁된 조선의용군 계열 간부인 주덕해와 최채들의 공통된 입장이지만 거기에는

* 本文繫國家社科基金一般項目“當代朝鮮族文學中的革命敘事與國家認同研究(批准號: 16BZW179)”的階段性成果

**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미묘한 차이가 존재했다. 동북항일연군 최고 지도자 주보중이 만주의 조선공산당원들이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김학철의 소설은 이 한 단락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소설은 또 동만 조선인 사회의 계급적 분화를 통해 친일지주계급의 반동성과 소작인 농민들의 혁명성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소작농 출신 혁명가의 철저성과 비타협성을 강조하였고 반제동맹은 결국 조, 중 두 민족의 비타협적이고 혁명적인 소작농 계급에 의해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김학철이 소설에서 구상한 반제동맹에서 불철저성과 불안정성을 가졌던 浮游하는 계층은 모두 타락하고 변질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소거되었으며 준엄한 투쟁의 고함을 이겨낸 비타협적 계층만이 지속적으로 동만 항일근거지 건설에 연결됨으로써 해방 이후 연변 조선족 사회의 순결성을 보장하였다. 소설은 또 역사적 사실에 충실함으로써 반우파 투쟁당시 ‘혁명의 패배사’라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이는 그의 작가적 양심이기도 했으며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핵심인 ‘사회주의적 전망’의 부재라는 면에서 그의 작가적 한계이기도 했으나 역으로 김학철식 문학 양식의 탄생이기도 했다.

이러한 혁명서사를 통해 김학철과 그의 전우들은 광복 전, 재만 조선인의 역사를 중국 공산당 영도 하의 동만 조선인의 항일투쟁 역사로 온전히 환원함으로써 조선족의 역사를 중국 근대사 속에 무리 없이 편입시킬 수 있었다. 이는 광복 직후, 중국에 남은 120만 조선인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 차원에서의 최고의 대안이었으며 당시 혼란에 처해있던 조선족의 조국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다.

주제어 : 김학철, 조선족의 혁명서사, 『해란강아 말하라』, 조선족 문학, 조선족 소설, 조선인의 조국관

I. 들어가기

1945년 광복 이후, 조선 반도로의 귀환을 포기하고 중국 동북에 잔류한 조선인은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중국의 공민으로, 중국의 소수 민족인 조선족으로 되었으며¹⁾ 1952년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동만, 즉 연변에 조선족 자치구²⁾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조선족의 중국 국적에의 가입과 조선족 자치구의 설립은 단순한 행정 조치의 차원이 아닌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였다. 거기에는 당시 연변의 조선인과 북한과의 혈연적, 정서적 유대관계, 역사적으로 내려온 간도 영유권 문제로부터 촉발된 연변의 정치적 구조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53년 말, 연변 조선족 자치구 창립 1년 만에 창작된 김학철의 장편소설 『해란강아 말하라』는 바로 이러한 범상치 않은 역사적 배경하에서 창작된 작품이며, 광복 이후 새로운 문인들로 교체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던 연변 조선족 문단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서서히 새 중국의 문학으로 정비³⁾되어가고 있던 시기에 창작된 조선족의 첫 번째 장편소설이다. 또한 사회주의 조국 건설을 소재로 하고 있던 이 시기의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과는 경향을 달리하여 ‘중국 공산당 영도 하의 1930년대 동만 조선인들의 항일투쟁’을

-
- 1) 중국 공산당이 동북 조선인의 국적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1946년 말, 연변 지역에서 토지 개혁이 진행될 무렵이었다. 당시 연변지위서기 유준수는 동북 조선인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고 토지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담보하기 위해 중공중앙에 동북 조선인의 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을 건의하였고 중앙의 비준을 얻었다.
 - 2) 연변의 행정단위는 1952년 9월 설립 당시 ‘연변조선민족자치구’였고 1955년 12월, 자치주로 변경되어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정식 명명되었다. 1952년에는 성, 지구, 현, 향의 4급 민족구역자치지방을 모두 자치구로 불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장 제5항의 규정에 의해 1955년 12월 18일에 ‘연변조선민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고쳤으며, 당기구 명칭도 이전에 ‘중공연변지위’라고 부르던 것을 ‘중공연변주위’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 3) 광복 이후, 재만 조선인 문단에는 작가층의 대대적인 교체가 일어나는데 김창걸과 리옥을 제외한 기성 문인들은 전부 조선반도의 남과 북으로 귀환하며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은 조선의용군 출신 작가(여기서 가리키는 조선의용군 출신 작가들은 연안에서부터 출발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동북으로 진군한 조선의용군이 동북 각 지역에서 확군 사업을 하면서 부대에 합류한 경우가 대부분인), 항일연군 출신 작가, 동북 각 지역 조선족 학교 교사 출신 작가들이었다. 1948년 4월 1일, 연길에서 연변 지위 기관지 『인민일보』를 발행하기 전까지는 통일된 지도가 없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세우고 잡지를 창간하였다. 1951년부터는 중국 공산당 연변 지위의 지도하에 연변문련주비위원회가 성립되는 등 문단이 조직체계를 갖추고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소재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란강아 말하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이루어진 동만 조선인의 민족 해방 서사라는데 초점을 맞추어왔으며⁴⁾ 당 선전부의 임무에 의한 창작으로, 『격정시대』로 대표되는 김학철 개인의 작품 세계에서는 동떨어진 작품이라고 평가되어왔다.⁵⁾ 나아가 이 작품이 사회주의 중국 건국 이후 조선족의 첫 번째 장편소설로서 조선족이 사회주의 중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중국 역사 속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이자 증명이라고 보았다.⁶⁾ 위의 기존 연구들은 작가 김학철과 그가 연변에서 창작한 첫 장편소설의 작품 세계를 구명함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동만 조선인의 항일투쟁을 ‘민족해방서사’로 고착화시킴으로써 지나치게 한국적인 시각을 드러내거나 혹은 김학철 스스로의 자기 부정과 비판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그의 첫 장편소설로서 『해란강아 말하라』의 문학사적 위상과 의의가 제대로 구명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작품이 조선족의 중국 역사로의 편입 과정에 대한 형상화라고 본 경우에도 작품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결여된 당위적 결론에 머무르고 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기존 연구의 기초 위에서 『해란강아 말하라』가 조선족의 첫 번째 혁명서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주의 중국의 건국 초기에 그러한 조선족의 혁명서사가 나타나게 된 정치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작가 김학철의 현실인식과 함께 그러한 혁명서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
- 4) 강형철, 「해란강아 말하라」, 『월간경향』, 1988. 9월호; 송현호,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20, 한중인문학회, 2007; 박용규, 「동북아 20세기와의 대결: 김학철의 민족해방서사」, 『비평문학』 32, 한국비평문학회, 2009; 최병우, 「중국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두 시각-〈해란강아 말하라〉와 〈고난의년대〉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2, 한중인문학회, 2011; 조정래,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 서술특성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6, 한중인문학회, 2017; 남기택, 「김학철 문학과 공동체의 장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7.
- 5) 김명인, 「어느 혁명적 낙관주의자의 초상」, 『창작과비평』, 창비, 2002년 봄호.
- 6) 이해영, 「『해란강아 말하라』의 창작방법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1, 한중인문학회, 2003; 「1950~1960년대 중국 조선족 장편소설의 두 양상」, 『한중인문학연구』 13, 한중인문학회, 2004; 「중국 조선족 사회사와 장편소설」, 역락, 2006; 『청년 김학철과 그의 시대』, 역락, 2006; 고명철, 「중국조선족 문학의 정치사회적 과제에 대한 서사적 탐구-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의 정치적 담론」, 『국제한인문학연구』 8, 국제한인문학회, 2011; 서령, 「중국 조선족 문학의 ‘중국화’ 문제」, 『한국학연구』 3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4.

II. 건국 초기 동북 조선인의 국적과 조국관 및 김학철의 현실인식

김학철은 훗날 회고록, 자서전 등에서 “『해란강아 말하라』는 선전부에서 임무를 맡겨서 쓴” 것이고⁷⁾ “정치 의무감에서 쓴” 것이라고⁸⁾ 후술하고 있는데 소설의 서문에서 “특히 이 소설의 초고를 가지고 수십 차의 토론을 피로한 줄도 모르고 같이 하여 주었고, 많은 의견을 제공하여 주었고, 적절한 비평을 가하여 준 최채 동지의 방조를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고⁹⁾ 특별히 밝히고 있다. 최채의 평전 역시 『해란강아 말하라』는 최채가 “실마리를 알려주고 하룡촌에 내려가 조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¹⁰⁾ 김학철이 한달 간이나 머물면서 항일빨치산투쟁에 대한 취재를 하고 돌아와 쓴 것인데 나중에 책이 나온걸 보고 최채는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고¹¹⁾ 회고하고 있다. 김학철의 전우이기도 했던 최채는 조선 의용군 출신으로 광복 직후 주덕해의 권유로 귀환을 포기하고 연변에 남았으며 이때 자치구의 부주석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주로 작가협회, 신문사, 방송국 등 선전부문을 총괄하고 있었다. 초기 연변 조선족 자치구의 부주석을 역임하고 있던 최채의 조언이 단지 그 개인의 의사만을 대변한 것이 아님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치구 주석 주덕해를 위수로 하는, 연변에 남아 연변의 실질적인 지도층이 된 조선의용군 출신 간부들의 입장이었고 또한 연변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기도 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¹²⁾

이러한 입장은 중화 인민 공화국 건국 이전인, 연변 해방구에서의 토지개혁이 실시 되던 1946년 무렵부터 문제가 되었던 중국 내 조선인의 국적 문제와 그로부터 비롯된 조국관의 혼란과 직결되어있다. 이 국적 문제는 조선인의 중국 이주 초기부터 내려온 역사적 범주의 미해결 과제였다. 공산당은 일찍 1930년대에 선언적 차원에서 동북 거주 조선인을 중국 경내의 소수 민족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중국 국민의 지위를

7) 연변문학예술연구소 편, 「김학철선생님과 문학대화」, 『김학철론』,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0, 318면.

8) 연변문학예술연구소 편, 앞의 1990 책, 318면.

9) 김학철, 『해란강아 말하라』 (상), 「머리말」, 풀빛, 1988.

10) 류연산, 『불멸의 영령-최채』, 민족출판사, 2009, 188면.

11) 류연산, 앞의 2009 책, 195면.

12) 이해영, 「김학철의 반제혁명 인식의 발전과 작가적 성장」, 『민족문화사연구』 71, 민족문화사학회, 2019, 212~213면.

인정하였다. 1930년대는 위만주국 시기였기 때문에 중공의 선언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광복 직후, 중공산당의 동북 근거지 건설에서 조선인의 국적문제는 더는 선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차원의 문제로 되었다. 1945년 9월 중공중앙 동북국은 “화북 지역에서 항전을 전개하고 있는 의용군을 제외한 동북 지역의 조선 민족은 중국 경내의 소수 민족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漢族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각 지방에서는 크고 작은 민족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였다.¹³⁾ 이어 국내 해방전쟁에서 동북 근거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된 중국 공산당의 토지 개혁을 앞두고 동북 잔류 조선인의 국적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었고 이에 대해 당시 중공연변지위서기 유준수는 동북 잔류 조선인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할 것에 관한 건의를 성위와 중앙에 보고하였다. 이 과정에 대해 유준수는 다음과 같이 회억하고 있다.

어느 한번 나는 한 조선족 로인과 한담하면서 조선형편이며 중국형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쪽과 저쪽이 어느곳이 더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참 어떻게 말하면 좋을는지? 이곳도 나의 조국이요 저곳도 나의 조국이니까.》 이렇게 말씀한 로인은 잠깐 생각하면서 《마치도 아버님과 어머니 같으니 누굴 더 좋다고 하겠나?》 하고는 웃음을 짓는 것이었다. 로인의 몇마디 말씀은 나에게 큰 계시를 주었다. 갑자기 그들더러 하나의 국적만 택하라고 하면 그들은 감정상에서 돌아서기 어려울 것이었다. 아버지의 아들이자 어머니의 아들! 그들의 이런 감정을 존중하여 조선이 그들의 조국이라는 것을 승인하는 한편 또 그들을 중국의 공민으로 중국의 한 소수민족으로 간주하면 되지 않겠는가? 즉 그들의 2중국적을 승인함으로써 중국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향수하게 하며 중국의 해방전쟁에 기여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다면 당면한 긴박한 문제도 풀 수 있고 그들의 감정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 물론 지금은 두 개의 국적을 운운할 수 없지만 당시에 이렇게 처리한 것은 매우 옳았다고 생각한다.¹⁴⁾

13) 김춘선, 「재만 한인의 국적 문제 연구」, 이해영 편, 『귀환과 전쟁, 그리고 근대 동아시아인의 삶』, 경진, 2011, 33면.

14) 유준수, 「조선족인민들속에서」, 『승리(조선민족발자취총서5)』, 민족출판사, 1992, 711면.

광복 직후, 중국 동북의 조선족은 역사적 원인으로 조선과 혈연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어져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논리적 차원이 아니라 감정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당시 조선족의 조국관의 혼란과 모호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며 중국 공산당 역시 이를 허용하고 묵인하였다. 이는 당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기념일에 연변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였다는 기사 내용 혹은 그러한 경축활동을 기념하는 시작품, 산문작품 중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조선에 대한 ‘조국’이라는 호칭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¹⁵⁾ 조선에 대한 이러한 친연성은 연변에 남아 연변의 지도층을 구성하고 있던 항일연군출신의 고위 간부들 사이에도 상당히 퍼져있었고 자치구 창립 이전에는 북한과 연변 사이에 고위 간부들의 교환도 이루어지고 있어 당시 연변 지역 조선족의 조국관의 혼란과 모호함을 가중시키고 있었다.¹⁶⁾ 이런 특수한 상황에 근거해 유준수는 당시 동북에서의 토지개혁이라는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근거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선족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할 것에 관한 건의를 중국공산당 중앙에 제기하였다. 즉 조선인들의 감정을 존중하여 조선이 조선족의 조국임을 승인함과 동시에 조선족을 중국의 공민으로, 중국의 한 소수민족으로 인정함으로써 조선족이 중국 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획득하도록 하는 이중국적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중앙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¹⁷⁾ 중앙에서는 이를 비준하였고 이리하여 조선인은 중국 공민으로서의 대우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토지를 분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두고 훗날 유준수는 “물론 지금은 두 개의 국적을 운운할 수 없지만 당시에 이렇게 처리한 것은 매우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회억하였다.¹⁸⁾ 국내

15) 이는 해방전 재만조선인 시인으로 활동하다가 광복 후, 중국에 남아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된 리옥의 1948년의 시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오 나는 北方한地域에서 / 조국 太陽 金日成首相을 삼가 받들었노니 / 널리 자랑하리라 / 조국 조선의 헌법을 / 길히 빛내리라 / 조국 조선의 國旗를” (리옥, 「조선이 일어난 아침」, 『김조규·윤동주·리옥 시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5, 418면).

16) 그 예로 1948년 동북군구와 성군구 대표단 단장의 신분으로 金宇와 함께 평양을 방문했던 김광협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김일성은 그를 조선에 남기고 대신 林春秋를 연변에 보냈다. 연변전원공서 전원을 맡아 연변대학의 창립에 큰 공헌을 하고 초대교장을 맡게 된 림춘추 역시 1948년 겨울 평양으로 갔던 길에 조선으로 돌아오겠다고 김일성에게 역지를 쓰며, 결국 연변대학 창립식 다음날 조선으로 가게 되었다. 최재, 앞의 책, 169면, 174면 참조.

17) 유준수, 「조선족인민들속에서」, 『승리(조선민족발자취총서5)』, 민족출판사, 1992.

18) 유준수, 앞의 1992 글, 711면.

해방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족 출신의 간부 유준수가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앙에 올려 조선족의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에 반해 조선족 출신의 민족간부 주덕해는 오히려 이 문제에서 매우 단호하게 다른 생각을 드러냈다.

“동북에 온 조선족은 거의 모두가 농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민족의 력사에 대해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으며 자기가 이 나라 공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기가 이 나라의 공민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면 무슨 자격으로 토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무슨 자격으로 군대에 나갈 수 있고 정치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¹⁹⁾

주덕해는 토지 소유권, 참군의 자격, 정치 권리의 행사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조선족이 중국의 공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공민권을 가져야만 그에 따르는 각종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 논리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1952년 당시 중앙민족사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던 최채 역시 주덕해와 함께 동북 거주 조선인에 대한 단일국적을 분명하게 주장하였다.²⁰⁾

한때 조선족의 인텔리 층에는 ‘다조국론’이 만연하였는데 1948년 12월, 길림성에서 소집한 민족사업좌담회에서 일부는 조선인의 조국은 여전히 조선이라고 했고 일부는 “무산계급의 조국은 소련이고 민족의 조국은 조선이며 현실의 조국은 중국이”라는 논리를 폈다. 주덕해는 ‘다조국론’에 대해 단호하게 부정하였으며 한 사람에게서 오직 하나의 조국밖에 있을 수 없으며 또 한 사람이 동시에 몇 개의 부동한 국적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중국의 조선족은 조선국토에 있는 조선 사람들과 비록 같은 민족에 속하기는 하지만 부동한 공민권을 향유하고 있는 만큼 어디까지나 중국의 공민이라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력사와 현상태를 똑바로 보는가 하는 것은 120만 동북 조선족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발전할 것인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은 조선족 자체에 리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²¹⁾ 주덕해가 조선족의 조국관 문제를 중국 내에서 조선족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현실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19) ‘주덕해의 일생’ 집필조, 『주덕해의 일생』, 연변인민출판사, 1987, 226면.

20) 류연산, 앞의 2009 책, 180면.

21) ‘주덕해의 일생’ 집필조, 앞의 1987 책, 229면.

있음을 보여준다. 한족 출신의 간부 유준수가 타민족 즉 제3자의 입장에서 조선족의 국적 문제를 정서적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주덕해와 최채 등은 이것을 조선족의 절박한 현실적 문제로 파악하면서 중국에 대한 확고한 귀속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유준수가 국가 지도층의 입장에서 조선족의 경제적 위치를 국가가 허용하는 틀 내에서 예외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 주덕해와 최채들은 그것이 곧바로 그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으므로 모호한 경제적 존재로서보다는 현실적 삶의 기반인 중국적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역으로 그들은 토지 소유권, 참군과 참정의 권리 나아가 곧 세워질 조선족 자치구의 보다 많은 자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수 민족 간부로서의 그들에게 체질화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중국 공산당을 향한 확고한 충성의 표시였을 것이다.²²⁾ 이는 훗날 반우파 투쟁 및 문혁 때, 이들 제1대 조선족 간부들 모두가 ‘민족주의자’로 낙인 찍혔던 것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선족은 다른 형제민족과 함께 <삼만> 지대를 개척하였고 여러 민족 인민들과 함께 반제반봉건투쟁을 벌여왔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위하여 자신을 기여하였습니다. 조선족의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선족은 중화민족의 떼떽한 한 성원입니다.”²³⁾

이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선택된, 건국 전후 연변 조선족의 제1인자이자 대변자였던 주덕해의 입장이자 동시에 당시 국공 내전의 와중에 연변지역 인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족의 지지를 얻어 연변 근거지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조선족 인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민족간부였던 조선의용군출신 주덕해와 최채들의 임무이자 직책이었다.²⁴⁾ 김학철이 이들의 입장을 대변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22) 이에 대해서는 이해영, 「중국 조선족의 선택과 조선인 간부들의 역할」, 『한국현대문학연구』 45, 한국현대문학회, 2015, 285~312면 참조.

23) ‘주덕해의 일생’ 집필조, 앞의 1987 책, 227면.

24) 여기서 잠깐 최채 역시 광복 직후 모친과 처자가 먼저 조선으로 귀국했으므로 줄곧 조선으로 가려고 했으나 주덕해에 의해 누차 설득당했음을 주목해볼 수 있다. 결국 최채는 부인과 아이들이

이는 동시에 왜 이러한 작업을 김학철이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내포하고 있기도 한데 이에 대한 해답은 당시 김학철의 현실인식의 층위와 맞닿아있다. 주지하다시피 김학철은 광복 후, 일본 나가사키 감옥에서 출감하여 서울로 귀환하며 서울에서 조선의용군 출신 작가로 등단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미군정의 좌익 탄압으로 46년 말, 월북하게 된다. 북한에서 노동신문사 기자 등을 역임하면서 문학 창작에 몰두하다가 조선전쟁 중, 피난 차, 북경으로 가게 되며 북경에서 ‘분재’²⁵⁾와 같은 생활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1952년 연변 조선족 자치구 창립 소식을 듣고 연변행을 결단한다. 최채의 임명으로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의 주임을 맡게 되며 이후 사직하고 전업 작가의 길을 걷게 된다. 1953년 휴전 직후, 조선으로의 귀환을 위해 단신으로 평양으로 찾아가나 연안파에 대한 숙청이 곧 시작될 조짐이 보이는 험악한 상황이므로 그대로 중국에 남으라는 전우 고봉기의 권유로 귀환을 포기하고 연변에 정착을 결심하며 아울러 중국 국적을 신청한다.²⁶⁾ 그러므로 “남과 북 어디서도 수용될 수 없었던, 몸 붙일 수 없었던 정치적 망명가 김학철에게 연변은 더는 낯설고 생소한 시골구석이 아니라 곧 이상과 현실이 합치되는 행복한 공간, 선택이 생략된 운명적인 공간”이었으며²⁷⁾ “연변은 곧 정치적 망명지 이상의 새로운 고향, 삶의 터전”이었다.²⁸⁾ 그가 기꺼이 최채의 권유를 받아들여 중국공산당 영도 하의 동만 조선인들의 항일투쟁의 역사를 형상화한 것은 그러므로 공적인 역사 쓰기를 통한 연변 역사에의 합류였고²⁹⁾ 연변 조선족의 정치사회적 기원의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³⁰⁾

다시 연변으로 오게 되자 연변에 정착을 결심하며 1952년 2월, 중앙민족사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이때 와서는 조선인에 대한 단일국적 즉 중국 국적을 주장했다. 이는 건국 초기 연변에 남은 조선인들이 중국의 공민으로,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그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5) 김학철, 『최후의 분대장』, 문학과지성사, 1995, 351면.

26) 오무라 마스오에 의하면 김학철은 1985년 8월말에서야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오무라 마스오 저, 곽형덕 역,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소명출판, 2017, 323면). 1952년에 연변에 정착하게 된 김학철이 무려 30여 년이 흐른 198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학철 선생의 아들 김해양은 필자에게 “당시 조선과 중국 사이는 당적을 공유하는 관계, 하여 주덕해의 권유로 당적 이적 수속을 하러 평양에 다녀온 것. 가져온 서류를 중공조직부문에 제출하여 중공당적 회복을 앞둔 시기 반우파운동으로 차단되고 국적수속도 연기. 80년대에 가서야 수속이 마무리 된 것인데 장장 28년이 걸렸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27) 이해영, 『중국 조선족 사회사와 장편소설』, 역락, 2006, 63면.

28) 이해영, 앞의 2006 책, 63~64면.

Ⅲ. 중국공산당 영도 하의 조선인의 동만 항일근거지 건설

김학철의 장편소설 『해란강아 말하라』는 ‘9.18사변’을 전후한 시기, 버드나뭇골을 중심으로 한 해란강 양안 조선인 농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한족 농민들과 단합하여 박승화를 비롯한 친일지주계급에 맞서 벌인 ‘추수’, ‘춘황’ 투쟁과 일제의 피비린 간도 대토벌에 맞서 동만 항일근거지를 건설하는 과정을 주선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9.18사변’ 전후라는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소설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해도 그 대신, 일병의 동북 침점으로 인하여 부쩍 자라난, 그리고 더 가까워
게는 마반산 근처에서 무리한 간섭자 일본 경찰이 자행한 유혈참극으로 인하
여 격발된 반일감정-중국사람은-자기의 영토를 침범한 외국 군대에 대한 증오,
조선사람은-너희 놈들 때문에 내 나라에서 쫓겨난 것만도 분한데 또 여기 따라
와서까지 못살게 굴어?..³¹⁾

‘9.18사변’은 모종의 의미에서는 동북의 조, 중 두 민족인민들이 공동의 적, 일본의 침략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조, 중 두 민족의 연대에 의한 항일투쟁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미 그 앞서 1930년 5월에 일어난 동만 전역을 휩쓴 ‘붉은 5월 투쟁’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각 파벌간의 쟁투와 협애한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중국공산당에 적극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다.³²⁾ 그리고 ‘9.18사변’ 직후면, 국제공산당의 ‘일국일당주의원칙’에 의해 동만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개인자격으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는 절차가 대부분 완료되며 동만지역의 항일투쟁은 중국공산당의 절대적인 영도 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조, 중 두 민족의 연대에 의한 공동의 항일투쟁을 위한 기초가 마련된다. 소설에 등장하는 ‘추수’, ‘춘황’ 투쟁은 바로 동만

29) 이해영, 「일본·서울·평양·북경·연변: 1945~1954년 김학철의 이동과 창작」, 『동아시아와 한국학 지식의 생산, 수용 및 해석』, 중국해양대 한국연구소 주최, 2019, 304면.

30) 고명철, 앞의 2011 논문, 18면.

31) 김학철, 『해란강아 말하라』 (상), 풀빛, 1988, 26면. 이하 본고는 한국 풀빛 출판사에서 1988년 출간한 『해란강아 말하라』 (상)·(하)를 텍스트로 하며 인용 시, 인용문 뒤에 권수와 면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체한다.

32) 楊昭全, 『中國朝鮮族革命斗争史』, 吉林人民出版社, 2007, 225면.

조선인 농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벌인 대표적인 반제 반봉건 투쟁이다. 친일지주 박승화에게 소작료를 썬해 바치는 가을걷이 마당에서 버드나뭇골 농협 책임자 한영수는 박승화의 앞잡이 최원갑으로부터 일본 군대가 봉천을 점령했다는 ‘9.18’ 사변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일순 망연자실하였다. 그리고 곧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하는 반발적인 투쟁의식이 소생하였다.”

그는 김서방 쪽을 한번 힐끗 돌아보고, 그 사람이 달구지 뒤로 돌아간 것을 보고, 열린 장검이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었다.

“내 아무래두 장검이, 이 길루 ……”

하나 그가 자기의 짧은 말을 채 다하기도 전에, 동네 쪽으로부터 또 하나의 사람이 뛰어서 나타났다.

그것은 땀을 이마에서 방울방울 떨구는 빼오넬 이성길이었다.

……

“이거, 화련서!”

그것은 빼오넬의 연락망을 통하여 날아온 ‘화급’이었다.

그것을 뜯어보고 영수는, 그 길로 화련을 향하여 떠나며 성길에게 말을 남기었다. (상, 145~146면)

정세의 급변에 당하자 한영수가 순간적으로 먼저 생각한 것은 한시라도 빨리 ‘화련’에 가는 것이었다. ‘화련’이란 중국 공산당 동만 특위에 소속된 해란구 구위원회의 소재지이며 동만 특별위원회가 파견한 대표이자 당수인 중국 동지 장극민이 책임자로 있는 곳이다. 이곳은 버드나뭇골을 비롯한 해란강 양안 마을들의 농협 책임자들이 투쟁 상황을 회보하고 새로운 임무를 전달받는 공간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상징한다.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화련’에서도 빼오넬의 연락망을 통하여 ‘화급’이 날아오며 영수는 그길로 화련을 향하여 떠난다. 이를 통해 ‘화련’으로 표상되는 중국 공산당 동만 특위와 해란강 양안 조선인 출신 중공당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및 정세의 급변에 적극 대응하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적 핵심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영수들이 화련으로부터 돌아오자 해란강 양안 조선인 농민들은 추수투쟁을 벌이며 조선인 지주 박승화, 중국인 지주 호가 등 친일 지주들의 집을 청산하고 그들로부터 불합리하게 징수했던 소작료를 반환 받는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조직적으로 일어난 추수투쟁은 승리하며 일제의 동북침략으로 힘을 얻었던 친일 반동 지주

들의 기업을 꺾어놓았다. 이듬해 해란강 양안 농민들이 벌인 춘황 투쟁 역시 중공 동만 특별위원회 대표 장극민의 영도 하에 해란구 구위원회가 춘공의 위협에 직면한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쫓아낸 것이다. 뒤를 이은 일본군의 간도 대토벌에 직면하여 중국 공산당은 인민군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기울였다. 버드나뭇골의 농협과 적위대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일본군의 토벌대가 마을로 들이닥치자 인민군중을 인솔하고 보호하여 산으로 피신하여 위기를 넘긴다. 그리고 드디어 해란구 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항일 인민유격대가 조직되기에 이른다.

그해 해란구 구위원회는 정식으로 항일 인민유격대를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장극민은 유격대를 조직하면서 동시, 그에게 이러한 첫 임무를 맡기었다.-하
동 ‘반공 자위단’ 본부를 습격 박멸할 것!

그것은 유격대의 역량을 시위함으로써 전구 인민의 투지를 고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 266면)

항일 인민유격대 즉 인민 무장의 건립은 동만항일근거지의 수립을 의미한다. 간도 대토벌에 나선 일본군과 반공자위단의 포격에 집이 무너지고 학교가 불타는 등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해란강 양안 조선인 농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인민무장을 건립하고 항일근거지 건설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은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결책자, 지도적 핵심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싸우는 조선인 동지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형과 같은 존재이다.

한 시간 후에 장극민은 읽던 책을 집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사그라지려는 불에다 삭정이를 큰 것으로 골라서 대여섯 가지 지피었다. 좌우를 둘러보고 곁에서 꼬부라져 새우잠을 자는 장검이에게, 형이 동생에게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자기의 상의를 벗어서 덮어주었다.

한참 동안을 뒤척거리다가 모자를 얼굴에 덮고야 겨우 잠들어 버린 그는, 한영수가 어디서 현, 어린아이 오줌 자죽 얼룩얼룩한 포대기를 얻어다 자기를 덮어주고, 발끝으로 걸어서 돌아가는 것을 아지 못하였다. (상, 183면)

새우잠을 자는 장검에게 자기의 상의를 벗어서 덮어주는 장극민의 행동은 형이 동생에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며 한영수 역시 잠들어버린 장극민에게 포

대기를 얻어다 덮어줌으로써 중국인 공산당 지도자와 조선인 출신 공산당원의 관계는 형과 동생의 관계로 표상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영수의 신변에 위험이 닥치자 버드나뭇골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농민들의 추수투쟁을 지휘하던 장극민은 위기와 불안을 느낀다.

그런데 연하의 이러한 아픈 염려보다도 더 크낙한, 더 유효한 배려를 영수의 몸에서 돌리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멀리 야영지 우등불 곁에 앉아서 호로대(보안대)와의 담판을 지도하고 있는 장극민이었다.

그는 영수를 단신 떠나보내 놓고 나니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다. 상스럽지 못한 예감이-그러나 결코 미신적인 것은 아닌, 자기의 오랜 투쟁경험이 깃가에다 속삭이여 주는 그런-예감이 그를 불안케 하였다.

어둠과 같이 몽롱하던 그것은 차츰 날이 밝아짐을 따라 뚜렷하여 갔다.

아직 보이지 않는 해가 동쪽 산마루에 붉은 신호를 띄울 무렵에야 드디어, 그는 결심을 내리었다.-버드나뭇골 소대 전원을 돌려보낼, 버드나뭇골로 급행시킬 결심을 내리었다. (상, 193면)

한영수에 대한 장극민의 염려와 배려는 애인인 연하의 그것에 비해 훨씬 크고 유효한 것이다. 성길의 아버지 이서방의 피살소식을 듣고 버드나뭇골로 급히 돌아간 한영수의 안위를 걱정하던 장극민은 중화민국의 보안부대에 의해 농민대오의 전진이 막혀 담판을 해야 하는 긴급한 관두에도 추수투쟁의 대의보다는 조선인 동지 한영수를 위해 버드나뭇골 소대 전원을 돌려보낼 결심을 내린다. 중국 공산당과 조선인 중공당원들 사이의 끈끈한 우애와 조선인 동지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 측의 깊은 배려를 보여준다.

이처럼 동만의 항일투쟁 중, 중국 공산당의 핵심적 위상과 영도적 지위, 그리고 동만 항일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인 중공당원과 농민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김학철은 소설의 서문에서 “그러기에 이 소설에도 기록된 간도 인민의 투쟁의 역사는 즉 중국 공산당의 투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설 가운데서 활약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영웅들은 그 모두가 다 중국 공산당에 의하여 배양된 우리의 겨레인 것입니다.”³³⁾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동북항일연군 최고 지도자 후보중이 1946년 12월 길림성 민족

사업 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동북에는 많은 조선족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

‘9.18’ 사변 전에는 우리 당의 군중기초가 있는 곳은 거의 다 조선족지구였다. 각지에 조직을 건립하고 확대시킴에 있어서도 조선족 간부들이 60~70%나 되었다. 특히 동만과 북만 각 지방 당의 지도자와 하급조직은 거의 전부가 조선족동지들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일부 조선족 당원과 공청단원들은 조선공산당이 해체된 후 개인의 신분으로 우리 당과 공청단에 가입한 분들이었다.

항일련군중의 조선족부대들은 언제나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하기로 소문이 났었고 그 어떤 난관신고도 이겨낼수 있었으며 싸움에서 더없이 용감하고 완강하여 부대에서 골간대로, 모범으로 되었었다. …… 이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조선족이다. ……³⁴⁾(밑줄 인용자)

주보중은 ‘9.18’사변 전에는 “우리당의 군중기초가 있는 곳은 거의 다 조선족 지구”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만 지역 조선인의 혁명적 각성과 열의를 보여주며 조선인의 계급혁명의 역사가 이 지역 중국인보다 일찍 시작되었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족 간부들의 비중이 60~70%에 이르고 동만과 북만 각 지방 당의 지도자와 하급조직은 거의 전부가 조선족 동지들을 핵심으로 했다고 회고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이 초기에 동만과 북만에서 대오를 확장하고 기반을 마련할 때, 대부분 조선인들에 의지하고 그들을 지지기반으로 기틀을 다졌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9.18’사변을 통해 동만의 중국인들도 일제에 대항해 나섬으로써 공산당의 영도 하에 조, 중 두 민족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공동항일에 나서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족 당원과 조선족 부대에 대한 주보중의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는 중국 공산당 측의 입장이기도 한바, 중국 공산당은 동만의 항일투쟁 중, 조선족의 공헌과 기여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보중과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결국 앞서 살펴본 주덕해와 최채들의 입장과 동궐에 놓이는 것이며 그것이 김학철의 소설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 영도 하에서의 조선인의 동만항일근거지 건설을 위한 피어린 투쟁으로 형상화되었다. 특히 주보중은 “일부 조선족 당원과

33) 김학철, 앞의 1988 책, 「머리말」.

34) 유준수, 앞의 1992 책, 703~705면.

공청단원들은 조선공산당이 해체된 후 개인의 신분으로 우리 당과 공청단에 가입한 분들이었다”고 증언함으로써 만주의 조선공산당원들이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그 관계를 밝히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구 초대구장인 주덕해 역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중공만주성위의 파견으로 소련 모스크바 ‘동방로동자공산대학’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뒤, 연안으로 가서 조선의용군으로 되지만 초기에는 조선공산당 ML과 당원이었고 후에 코민테른의 일국일당제의 원칙에 의해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던 것이다.³⁵⁾

그러나 김학철의 소설은 이 한 단락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이는 그가 만주 내지 연변과는 전혀 연고가 없었고 연변의 역사에 대해 거의 백지상태나 다름없었던 것에서 연유된 것일 것이다. 만주 내지 연변과 전혀 연고가 없고 백지상태라는 점에서는 김학철의 전우이자 상급이고 또한 그의 창작의 멘토 역할을 하기도 했던 최채³⁶⁾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중국 내 조선인의 이중 국적을 단호히 부정하고 단일한 중국 국적을 견결히 주장했으며 연변에 조선족의 민족자치구를 건설하려고 노력했던 주덕해 본인으로서 연변의 공적인 역사는 중국 공산당 영도하의 동만 조선인의 항일투쟁의 역사로 충분한 것이었고 조선 공산당과의 연관은 기억해서는 안 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였을 것이다.

IV. 동만 조선인의 계급적 분화와 연변 조선족의 계급적 순결성 보장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는 위에서 살펴본 일제의 간도 대토벌에 맞서 중국

35) 최국철, 『주덕해 평전』, 연변인민출판사·민족출판사, 2012, 3~12면 참조.

36) 최채: 1914년 조선 황해도에서 출생,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를 따라 1920년 상해로 이주했으며 1940년 중경에서 조선의용대에 참가. 1941년 부대를 따라 팔로군 항일근거지로 이동, 화북조선독립동맹에 가입. 광복 후, 동북으로 파견, 조선의용군 제3지대 교도대대 교도원, 길동군분구 독립3탄 부정치위원 겸 정치처 주임 역임. 1948년 길림성인민정부 민족청 과장, 연변일보사 사장 역임. 1948년 중공연변지위선전부장 겸 연변일보사 사장 역임. 1952년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설립과 함께 자치구 부주석 역임, 1954년 중공연변지위 부서기 역임. “문화대혁명” 기간 박해를 받아 수년간 감옥살이, 농촌으로 ‘정배’됨. 1983년부터 길림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겸 민족위원회 주임위원을 맡음. 1985년 리직 휴양, 2006년 장춘에서 향년 92세로 서거.

공산당의 영도 하에서 이루어진 동만 조선인 농민들의 저항과 동만항일근거지 건설을 하나의 주선으로 한 외에, 추수, 춘황 투쟁으로 표상되는 친일 지주, 부농계급에 대한 농민들의 계급투쟁을 또 하나의 주선으로 하고 있다.

소설에서 친일 조선인 지주 박승화, 중국인 지주 호가를 비롯한 지주계급은 버드나뭇골을 비롯한 해란강 양안 조선인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억압하는 악의 축으로 그려져 있으며 이들 양 계급간의 대립과 모순은 극에 달해있다. 버드나뭇골의 지주 박승화는 온갖 방법을 다해 소작농들을 착취하는데 그의 먼 친척되는 처남 임장검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고아인 임장검을 거두어준다는 명목 하에 그에게 샀전 한푼 주지 않고 그의 고혈을 짜낸다. 석린구의 중국인 지주 호가 역시 자기의 세력을 등대고 빗 대신 소작농의 아내를 뺏거나 찍하면 자기가 키우는 사나운 개를 풀어 소작농들을 물어 목숨까지 잃게 하는 등 만행을 저지른다. 추수투쟁에서 버드나뭇골 소작농들에게 진압당한 박승화는 그들이 석린구의 추수투쟁을 지원하러 마을을 비우고 떠난 사이, 죄없는 성길의 아버지 이서방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그 죄를 공산당에게 덮어씌운다. 추수투쟁에서 진압당한 해란강 양안 친일 지주들은 대촌의 지주 이범도의 집에 모여 보복을 획책하며 곧 이어 각 마을의 농협간부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농민협회에 대한 보복을 진행한다. 박승화는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작농들에 대한 착취를 지속하기 위해 일제와 결탁하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버드나뭇골에 대한 대토벌을 감행하는 등 반동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러한 친일 반동 지주계급과 날카롭게 대립하는 축이 바로 한영수, 임장검, 박화춘을 비롯한 조선인 소작농들이며 중국인 농민이자 농협 조직간사 왕남산 역시 이들과 함께 한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추수투쟁을 일으킴으로써 반동 지주계급에 맞서며 그 와중에 군중의 힘에 대해 깨닫게 된다.

군중의 압력-오직 이것만이 아무리 굳이 닫긴 문도, 어떠한 유형의 문도 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열쇠다! 이렇게 자각한 그는 그제야 비로소 자기와 자기의 겨레들이 위대한 힘을 가진 거인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새삼스러이 그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상, 182면)

추수투쟁에서 자기의 세력을 믿고 안하무인이던 호가가 끝내 소작농들의 단결된 힘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임장검이는 스스로의 힘을 놀랍게 발견하였다. 이러

한 승리는 많은 소작농들을 고무하여 추수투쟁에 떨쳐나서게 하였으며 그들이 반동 지주와의 고리를 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추수투쟁과 춘항투쟁을 통해 박화춘, 박화춘 댁 등 많은 소작농들이 지주계급과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건결히 나서며 그들의 입장을 확고히 하게 된다. 일제의 동북 침략으로 중국 공산당은 “반제동맹을, 여적꺼지는 유명무실허던 반제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반제통일전선의 결성을 호소한다.

“웬만한 헌건 다 관대 처리허구, 다 우리편에 끌어다 붙이구, 타격면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줄이시오. 그 대신, 일단 선정한 목표를랑은, 그건 사양 말고, 뿌럭질 아주 빼버리시오! 일본놈과 연계된 꼬나풀은 굶던 가늘던 다 잘라버리시오! 죽을 죄를 져어두 일본놈과만 사이가 좋잖다문 다 용설 허시오-알았지, 한동무? 음, 실수 마오!” (상, 258면)

춘항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해란구 구위원회 회의에서 장극민이 한영수에게 한 말이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이러한 반제동맹의 결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극단적인 계급대립과 계급모순이 주를 이룬다. 장극민이 중국어를 잘하는 구위원회 배상명, 임장검 등 몇 명을 데리고 일정한 반일정서를 가지고 있는 구 군별 잔여부대 ‘삼림둥이’의 큰 집단인 등충이의 부대에 들어가 그들과 동맹을 묶어 공동 항일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에 이르게 된 일을 그 일례로 들 수 있다. 그들이 비록 대평 마을의 악질 대지주 호가를 치는 일에 합의를 보고 일을 성사하였으나 호가에 대한 처리에서 양측은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인다. 장극민은 농협간부를 독살한 것으로 밝혀진 호가를 처단하려고 하나 재물 획득을 목표로 한 등충은 호가의 처형에 동의하지 않는다.

“단, 호가만은 우리에게 넘길 것!”

“호가? 건, 안되우! 호가는-안되우!”

“어째서?”

“우리 법이 그렇소. 요구를 다 들은 이상, 그 사람은 해치않는 기 우리 규정 이요.”

“그 자는 우리 간부를 살해했소. 죄 없는 그 가족끼지를 살해했소.-우린 그런 악한을 이 세상에 살려둘 권리가 없소!”

“그건 당신네의 일이요. 여기서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요!-난 약속대루 무

기만을 넘기겠소. 총 석 자루에 탄약 70발-이것만을 넘기겠소.”

비록 쳐 먹기는 하여도 뿌럭지는 한 뿌럭지인 등충이는 막다른 데까지 가면 결국은 지주의(뿐만 아니라 일제 유산자의) 편이었다.

그것은 계급이 주는 벗어날 도리 없는 한계였다. (하, 182면)

실력보존과 적극적 항일, 소극적 항일의 문제를 놓고 갈등과 의견분기를 보이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던 장극민과 ‘삼림둥이’의 두목 등충은 대지주 호가네 집을 치는 일에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호가에 대한 처리에서는 극도의 대립을 보이며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하게 된다. 김학철은 이를 ‘계급이 주는 벗어날 도리 없는 한계’라고 지적함으로써 결코 출신 계급을 넘어설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학철은 반제동맹이 조, 중 두 민족 소작농 계급의 동맹이 될 수는 있으나 지주와 소작농 간의 계급적 계선과 대립을 넘어서 즉 계급관계를 무화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제동맹과 계급관계와의 문제에서 소설은 浮游하는 계층으로서 중간계급의 불철저성과 불안정성과 함께 그들의 반동에로의 타락과 변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담이 작고 자기 잇속만 챙기는 유서방의 보초선에서의 도주, 중농계급 출신 지식인 김달삼의 변질, 부유한 소상공인 계급 출신인 그의 아내와 장모, 처남의 변절과 친일 간첩으로의 전락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를 통해 김학철은 소작농 출신 혁명가의 철저성과 비타협성을 강조하였고 반제동맹은 결국 조, 중 두 민족의 비타협적이고 혁명적인 소작농 계급에 의해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계급성에 기초한 반제동맹의 결성과 함께 김학철이 강조한 또 하나의 문제는 연변 조선족의 계급적 순결성에 대한 보장이었다. 김학철이 소설에서 구상한 반제동맹에서 불철저성과 불안정성을 가졌던 浮游하는 계층은 모두 타락하고 변질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소거되었으며 준엄한 투쟁의 고함을 이겨낸 비타협적 계층만이 지속적으로 동만 항일근거지의 건설을 위해 희생할 자격을 가지거나 끝까지 살아남아서 해방 이후의 연변 조선족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출신부터가 깨끗하다. 소설은 그 첫 머리에서 버드나뭇골 농회의 주요 간부이자 이후 동만 항일근거지 건설의 주요 골간이 되는 주인공 한영수, 한영옥, 임장검, 허연하 등의 출신과 성장에 대해 근 한 개 장절씩의 편폭을 할애하여 상세히 서술한다.

영수 오랍누이는 나중 돌아가신 어머니를 여윈 지도 벌써 4, 5년이지만, 어려서부터 받아온 그들 부모네의 영향으로 줄곧 해마다, “명년엔 나간다! 명년엔 나간다!”를 외느라고 언제나 궁둥이가 반쯤 떠 있어서, 뽀뽀한 터전에 나무 한그루 심으려 하지 않다가 작년에야 비로소 울타리 밑에 백양나무 다섯 주와 배나무 다섯 주를 떠다 심고, 거기에 자기들도 뿌럭지를 박고 안착할 결심을 내리었다.

하나 그것은 결코 살림이 전보다 나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아니, 그것은 도리어 해마다 점점 더 못하여 갔다), 영수의 자라나는 지혜가 정치적 안계를 넓히면서 자기네 부모의 어리석음을 비판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도달한 때문이었다.

그가 묘목을 떼오기 전 여섯 달에, 지하로 자기의 거대한 세포조직을 늘려 나가던 중국 공산당의 뜨거운 손길이, 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그에게-빈한한 젊은 농민인 그에게-뽀어와 닿은 것이다. (상, 22면)

한영수와 한영옥 두 오누이가 동만에 정착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부모대로부터 대물림되어 내려온 벗어날 길 없는 가난과 중국 공산당의 지하조직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가난은 이들이 중국 공산당에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중국에 정착을 결심하고 항일투쟁과 중국 혁명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보이기도 하다. ‘임장검’이라는 제목으로 서술된 임장검의 출신 역시 갓난아기 시절 고아가 되어 외할머니 손에서 크다가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자 어린 나이에 외사촌 누이와 그 매형인 지주 박승화에게 수용당하여 사실상의 머슴이 되며 “고아를 돌보아 준다는 은혜로운 말로 목구멍을 탈아 막고, 친척이라는 정리로 수족을 얹어 매어 꼼짝을 못하게 하여 놓고 하는 최대한의 착취”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가 일본군에 체포된 후, 투항과 자백, 전향을 거부하고 장렬하게 희생되는 것은 그의 출신, 성분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허연하’라는 제목으로 서술된 허연하의 출신 역시 가난 때문에 그 부모에 의해 팔려가게 되는 기구한 신세이다. 가난과 공산주의 혁명, 그리고 식민지 조선과 중국 동북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의해 제기된 항일투쟁은 이처럼 하나의 고리로 묶이는 것이며 이는 항일투쟁과 공산주의 혁명 승리 이후의 연변 조선족 사회에 연결되는 것이다. 출신과 성장과정에서 이들 조건을 충족시킨 성원들이 결국 해방 이후의 연변 조선족 사회의 계급적 순결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김학철은 보았다.

V. 『해란강아 말하라』의 한계와 김학철 문학의 탄생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이 작품에 대한 최채의 평가를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최채는 김학철에게 실마리를 제공하여 이 작품을 창작하도록 조언했고 집필 과정에서는 ‘수십차의 토론’과 ‘많은 의견’을 제기해주었고 ‘적절한 비판’을 가해주었으나³⁷⁾ 정작 책이 나온 걸 보고 최채는 “마음에 안든다”고 했고 김학철도 최채의 의견에 수긍했다.³⁸⁾ 그렇다면 최채는 왜 이 책이 “마음에 안든다”고 했을까? 이에 대해 최채의 평전은 더 이상의 설명이나 해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그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다만 이 작품이 연변조선족자치구 창립 이후의 첫 장편소설이라는 점, 최채 자신이 창작의 실마리와 동기를 부여했음을 염두에 둘 때, 이 “마음에 안든다”의 의미는 최채 자신이 원했던 소설의 진행방향이랴든가 결말 등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작품이 1957년의 반우파 투쟁 중에서 ‘반당 반사회주의적 독초’로 비판 받았음을 떠올려볼 수 있다.

당시 연변조선족자치주 당위 기관지인 『연변일보』의 부총편을 맡고 있던 리근전은 『연변일보』 1957년 12월 12일자 제 3면에 근 반면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해란강아 말하라》와 그의 작가』라는 제목의 비판문을 게재하고 있다. 비판문은 ‘역사 현실에 대한 외곡’, ‘몇몇 인물 형상에 대하여’, ‘이 소설의 주제사상’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작품을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판의 핵심은 김학철이 역사 현실을 왜곡하였고 인물형상의 부각이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전형성 이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리근전은 작가가 소설의 서문에서 비록 “간도 인민의 투쟁의 역사는 중국 공산당의 투쟁의 역사”³⁹⁾라고 썼지만 “소설의 전폭 사상 내용을 보아 《혁명의 패배사》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 같다”⁴⁰⁾고 비판하였다. 그 원인에 대해 리근전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37) 김학철, 『해란강아 말하라』 (상), 「머리말」, 풀빛, 1988.

38) 류연산, 『불멸의 영령-최채』, 민족출판사, 2009, 195면.

39) 리근전, 『《해란강아 말하라》와 그의 작가』, 『연변일보』, 1957.12.12, 3면.

40) 리근전, 앞의 1957.12.12 글, 3면.

이 소설은 일본 제국주의가 동북을 무장 침략하기 전 즉 9.18 직전으로부터 일본 제국주의가 동북을 침략한 후-1932년을 시대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31년부터 1936년까지는 연변에 있어서 항일 투쟁의 고조기였다. 그 후(1936년 후) 일시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는 일본 살인귀들의 혹독한 진압과 토벌에 의하여 투쟁이 지하로 들어가기는 하였지만 연변 각족 인민들의 투쟁은 한시도 꺼쳐본 적이 없으며 더욱이 1932년 그 당시의 항일의 불길이 가장 높고 치열하던 때이다. 그러나 작자 김학철이는 연변 인민의 거센 항일 투쟁의 축영으로 되는 버드나무골-해란구 농민들의 항일투쟁을 절망적으로 그려놓았다.41)

리근전에 의하면 1931년부터 1936년까지는 연변에 있어서 항일투쟁의 고조기이며, 특히 이 소설의 배경이 되어 있는 1932년 당시는 항일의 불길이 가장 치열하던 때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변인민의 항일의 고조기를 김학철이 절망적으로 그려놓았고 패배의 역사로 기록했다는 것이 리근전의 비판의 요지이다. 실제로 1930년 ‘붉은 5월 투쟁’부터 1936년까지를 동만의 항일투쟁의 최고봉으로 보는 것은 역사학계에서는 거의 공인된 역사적 사실이며 이 무렵 동만항일투쟁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 영도의 확립과 항일통일전선의 확립이 그러한 항일 투쟁의 고조를 일으킨 내적 동력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이다.⁴²⁾ 1934년 3월, 중국 공산당은 동만의 유격대세력을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으로 개편하는데 이는 동만의 항일투쟁의 전성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제의 거듭되는 간도 대토벌과 피비린 탄압으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은 1936년 이후 동만의 마지막 항일유격근거지인 내두산 근거지를 포기하고 동만에서 철거하여 무송현 경내로 이동한다.⁴³⁾ 또한 만주에서 중국 공산당 영도 하의 항일연군의 마지막 저항은 1939년 겨울까지로⁴⁴⁾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는 또 이 항일투쟁의 고조기에 동만의 인민들이 겪은 지난한 희생도 기록하고 있다.

41) 리근전, 「『해란강아 말하라』와 그의 작자」, 『연변일보』, 1957.12.12, 3면.

42) 楊昭全, 『中國朝鮮族革命斗争史』, 吉林人民出版社, 2007, 225면.

43) 田震奎, 「中國共產黨在東滿的抗日斗争研究」, 중국 동북사범대 박사학위논문, 2016, 54면.

44)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80면.

1932년 일제와 위만군은 ‘제1기 치안 숙정 계획’을 세우고 동만지구를 주요 숙정 대상지역으로 하여 야만적인 ‘삼광’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항일유격근거지에 대규모의 군사토벌을 감행하였다. 1932년 4월, 조선 주둔 일본군은 ‘간도파견대’를 조직하여 동만지구를 침범하였으며 그해 연말까지 무려 381차에 달하는 ‘토벌’을 감행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1932년 4월부터 1932년 말까지 동만 4개현에서 살해된 군중은 무려 4,000여 명에 달했다.⁴⁵⁾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만주국 건국과 함께 치안숙정공작의 일환으로 1932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이루어진 일제의 간도 대토벌의 잔혹함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당시 간도에 거주했던 작가 강경애는 일제의 간도 대토벌을 피해 조선으로 피난하면서 쓴 수필 「간도를 등지면서, 간도야 잘 있거라」에서 “수없는 피난민들은 군대의 행보하는 것을 얼빠지게 슬금슬금 바라보며 보기만 해도 무섭다는 듯이 그들의 몸을 쪼그린다. 정든 고향을 등지고 생명의 보장이나마 얻어볼까 하여 누더기 보따릴 짊어지고 방향도 定치 못하고 밀려나오는 그들 …… 아니 그들 중에는 백의 동포도 얼마든지 섞여 있다”⁴⁶⁾고 간도 대토벌 당시 동만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1933년 발표한 수필 「간도의 봄」에서는 “그때 불안과 공포에 쌓여 그 봄을 맞았던 간도!”, “피에 물들인 그 봄!”⁴⁷⁾이라고 회억하고 있다. 이는 김학철의 기억과 재현이 결코 역사에 대한 왜곡이 아님을 반증한다. 리근전이 “력사 현실을 왜곡하여 묘사하였다”⁴⁸⁾고 비판한 “그 대신 벌써 열기 시작한 시체를 안고, 혹은 그 위에 엎드려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의 슬프고 애달픈 곡성만이 처참하였다”⁴⁹⁾, “총을 들고, 제각기 다 아몰리지 못한 크고 작은 가슴의 상처를 그대로 안은 채, 풀리기 시작한 해란강의 기슭을 떠나, 고난에 찬 길에 올랐다.”⁵⁰⁾는 소설의 결말은 강경애가 묘사한 간도 대토벌 당시를 연상케 한다. “그들은 왕우구-왕청, 연길 접경-의 밀림지대로 이미 있는 세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45) 田震奎, 앞의 2016 논문, 47면.

46)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2002, 723~724면.

47) 이상경 편, 앞의 2002 책, 732면.

48) 리근전, 앞의 1957 글.

49) 김학철, 앞의 1988 책, 283면.

50) 김학철, 앞의 1988 책, 289면.

그리고 새 역량을 거기서 자래우기 위하여 잠시 들어갔다”⁵¹⁾는 소설의 말미는 일제의 간도 대토벌에 직면하여 삶의 근거지를 잃고 산속으로 이동하여 항일유격근거지를 개척하던 당시 동만의 여러 조선인 부락의 정경을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동만 항일투쟁의 고조기로 본 리근전의 기억도, 그리고 이 시기 동만 인민들이 겪은 일제의 피비린 토벌과 그로 인한 동만 인민들의 참혹한 희생에 대한 김학철의 문학적 재현 모두 결국 역사의 진실이다. 리근전이 역사의 총체적 흐름과 방향을 파악했다면 김학철은 역사의 큰 흐름을 이루는 작은 갈피들, 세부들을 재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리근전은 왜 김학철의 이 소설을 “역사적 현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판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위의 리근전의 비판문에 제시된 “작자 김학철이는 연변 인민의 거센 항일 투쟁의 축영으로 되는 버드나무골-해란구 농민들의 항일투쟁을 절망적으로 그려놓았다”는 대목과 “소설의 전폭 사상 내용을 보아 《혁명적 패배사》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 같다”고 한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리근전은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하나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사회주의적 전망’ 내지 승리를 위한 대안이 빠져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당시 연변의 언론을 주도하는 유일한 당위기관지인 『연변일보』 부총편이었던 리근전으로서는 당연한 지적이었을 것이다. 이는 훗날 리근전이 평생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창작으로 일관했던 것에서도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다.⁵²⁾ 최재 역시 당시 연변 주당위

51) 김학철, 앞의 1988 책, 289면.

52) 김학철과 함께 중국 조선족의 제1세대 작가인 리근전은 9살에 아버지를 따라 조선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이주민 1세대이며 1945년 광복 당시, 17세의 나이로 동북민주련군에 참군하여 무장공작대, 토지개혁공작대를 거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다. 길림시 룡담보안대 대장, 중공 길림시 강북구 구위선전위원, 길림시교육위원회 위원 겸 비서, 길림시위판공실비서과 과장 겸 시위상무위원회 비서 등 직무를 담임하고 당무사업에 주력하였다. 1953년부터 『길림일보』 농촌조 소장, 『길림일보』 연변주재소 소장, 『연변일보』 제1부총편 등 직무를 맡았고 중공연변주위 정책연구관공실 부주임, 중공연변주위 선전부 부부장을 역임하였다. 1952년 무렵부터 창작을 시작하여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1956년 중국 작가협회에 가입하였고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의 부주석을 역임하였다. 그는 평생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을 철칙으로 수호해왔는데 중국 조선족의 이민사와 동만에서의 항일투쟁사, 국내해방전쟁시기 조선족의 공헌 등에 대해 형상화한 장편소설 『고난의 년대』와 『범바위』는 그의 대표작으로 철저히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따라 창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국 조선족의 이민사를 형상화한 첫 이민서사로 널리 알려진 『고난의 년대』는 그 창작방법 상의 도식성이 한계로 지적되었으며 조선족 연구자들로부터 “우리가 이미 배운 역사교과서와 모종 근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혹평을 받기도 하였다.

선전부장으로서 연변의 문예노선과 정책을 결정하고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마음에 안든다”고 했던 최재의 평가 역시 리근전의 이러한 지적과 같은 맥락에 놓여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김학철은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것이라고 나름의 이유를 제시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그의 작가적 양심을 보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필연적인 승리를 선취하는 것이야말로 작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했음은 이제 막 장편을 쓰기 시작한 김학철의 작가적 역량의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하자면 김학철 문학의 본령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적어내는 것 즉 체험과 사실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김학철 소설의 특징이자 모종의 의미에서는 한계로 되었음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특히 그의 자전적 소설 『격정시대』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전통적인 서사를 지향하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해란강아 말하라』의 이러한 역동적 서사구조 혹은 바꾸어 말하면 위에서 동시대의 작가 리근전 등에 의해 비판된 한계는 바로 그의 이러한 창작적 기질과 전통적인 사회주의 사실주의적 서사에 대한 지향이 서로 부딪쳐 만들어진 것이다.⁵³⁾ 이점을 생각한다면 양심과 한계를 떠나 이 작품은 김학철 문학이 탄생하는 장면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Ⅵ. 결론

이 글은 1953년 연변조선족자치구 창립 1년 만에 창작된 김학철의 장편소설 『해란강아 말하라』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중국의 건국 초기에 그러한 조선족의 혁명서사가 나타나게 된 정치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작가 김학철의 현실적 인식과 함께 그러한 혁명서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바를 구명하였다.

소설은 ‘9.18’사변을 전후한 시기, 중국 공산당 영도 하의 조선인의 동만 항일근거지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절대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며 조선인 중공당원에 대해서는 형과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 동북의 항일투쟁

53) 이해영, 앞의 2003 논문.

에 대한 조선인의 공헌과 기여는 중국 공산당과 건국 초기 중국 공산당에 의해 연변 조선족의 지도자로 발탁된 조선의용군 계열 간부인 주덕해와 최채들의 공통된 입장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했다. 동북항일연군 최고 지도자 후보중이 만주의 조선 공산당원들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김학철의 소설은 이 한 단락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이는 그가 만주 내지 연변과는 전혀 연고가 없었고 연변의 역사에 대해 거의 백지상태나 다름없었던 것에서 연유된 것일 것이다. 소설은 또 동만 조선인 사회의 계급적 분화를 통해 친일지주계급의 반동성과 소작인 농민들의 혁명성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소작농 출신 혁명가의 철저성과 비타협성을 강조하였고 반제동맹은 결국 조, 중 두 민족의 비타협적이고 혁명적인 소작농 계급에 의해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김학철이 소설에서 구상한 반제동맹에서 불철저성과 불안정성을 가졌던 浮游하는 계층은 모두 타락하고 변질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소거되었으며 준엄한 투쟁의 고함을 이겨낸 비타협적 계층만이 지속적으로 동만 항일근거지 건설에 연결됨으로써 해방이후 연변조선족사회의 순결성을 보장하였다. 소설은 또 역사적 사실에 충실함으로써 반우파투쟁당시 ‘혁명의 패배사’라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이는 그의 작가적 양심이기도 했으며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핵심인 ‘사회주의적 전망’의 부재라는 면에서 그의 작가적 한계이기도 했으나 역으로 김학철식 문학양식의 탄생이기도 했다.

이러한 혁명서사를 통해 김학철과 그의 전우들은 광복 전, 재만 조선인의 역사를 중국 공산당 영도 하의 동만 조선인의 항일투쟁의 역사로 온전히 환원함으로써 조선족의 역사를 중국 근대사 속에 무리 없이 편입시킬 수 있었다. 이는 광복 직후, 중국에 남은 120만 조선인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 차원에서의 최고의 대안이었으며 당시 혼란에 처해있던 조선족의 조국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다. 주덕해에게도, 최채에게도, 김학철에게도 1930년대 연변의 항일투쟁사는 생소한 세계였지만 당시 연변조선족의 상황은 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 나름의 판단이었고 그 결과가 바로 중국 공산당 영도 하의 동만 조선족의 항일투쟁사 쓰기였다.

투고일: 2020.04.26

심사일: 2020.05.26

게재확정일: 2020.06.17

참고문헌

강형철, 「해란강아 말하라」, 『월간경향』, 1988. 9

김학철, 『최후의 분대장』, 문학과지성사, 1995

김학철, 『해란강아 말하라』 (상)·(하), 풀빛, 1988

류연산, 『불멸의 영령-최재』, 민족출판사, 2009

연변문학예술연구소 편, 「김학철선생님과 그의 문학대화」, 『김학철론』,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0

오무라 마스오 저, 곽형덕 역,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소명출판, 2017

이상경 편, 『강경에 진집』, 소명출판, 2002

이해영, 『중국 조선족 사회사와 장편소설』, 역락, 2006

_____, 『청년 김학철과 그의 시대』, 역락, 2006

‘주덕해의 일생’ 집필조, 『주덕해의 일생』, 연변인민출판사, 1987

최국철, 『주덕해 평전』, 연변인민출판사·민족출판사, 2012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楊昭全, 『中國朝鮮族革命斗争史』,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07

고명철, 「중국조선족 문학의 정치사회적 과제에 대한 서사적 탐구-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의 정치적 담론」, 『국제한인문학연구』 8, 국제한인문학회, 2011

김명인, 「어느 혁명적 낙관주의자의 초상」, 『창작과비평』, 창비, 2002

김춘선, 「재만 한인의 국적 문제 연구」, 이해영 편, 『귀환과 전쟁, 그리고 근대 동아시아인의 삶』, 경진, 2011

남기택, 「김학철 문학과 공동체의 장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7

박용규, 「동북아 20세기와 대결: 김학철의 민족해방서사」, 『비평문학』 32, 한국비평문학회, 2009

서령, 「중국 조선족 문학의 ‘중국화’ 문제」, 『한국학연구』 3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4

송현호,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20, 한중인문학회, 2007

유준수, 「조선족인민들속에서」, 『승리(조선민족발자취총서5)』, 민족출판사, 1992

이해영, 「『해란강아 말하라』의 창작방법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1, 한중인문학회, 2003

_____, 「1950~1960년대 중국 조선족 장편소설의 두 양상」, 『한중인문학연구』 13, 한중인문학회, 2004

- _____, 「김학철의 반제혁명 인식의 발전과 작가적 성장」, 『민족문학사연구』 71, 민족문학사학회, 2019(a)
- _____, 「일본 · 서울 · 평양 · 북경 · 연변: 1945~1954년 김학철의 이동과 창작」, 『동아시아와 한국학 지식의 생산, 수용 및 해석』, 중국해양대 한국연구소 주최, 2019(b)
- 조정래,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 서술특성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6, 한중인문학회, 2017
- 최병우, 「중국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두 시각-<해란강아 말하라>와 <고난의 년대>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2, 한중인문학회, 2011
- 田震奎, 「中國共產黨在東滿的抗日斗争研究」, 중국 동북사범대 박사학위논문, 2016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Koreans' Revolutionary Narration and National Identity in Northeast China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Based on Kim Hak-cheol's *Say It, Hailan River*

Li, Haiying

Say It, Hailan River is a long revolutionary novel about "the Chinese Koreans' Anti-Japanese struggle in Manchuria in 1930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which was written by Chinese Korean writer Kim Hak-cheol in 1953,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Region. By describing the class division of the Chinese Korean society in Manchuria, the novel vividly depicted the reactionary nature of the pro-Japanese landlord class and the revolutionary nature of the tenants, as well as the thoroughness and non compromise of the revolutionaries who came from the tenants. Kim Hak-cheol emphasized that only the non compromise class who had withstood the severe struggle could continue to devote themselves to the construction of Manchuria anti-Japanese base area in Northeast China, and only they could ultimately ensure the purity of Chinese Korean society in Yanbian. Through this revolutionary narration, Kim Hak-cheol completely restored Chinese Koreans' history in Manchuria to the history of Chinese Koreans' anti-Japanese struggle in Manchuria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compiled Chinese Koreans' history into the modern history of China without dispute.

Key Words : Kim Hak-cheol, Chinese Korean's revolutionary narration, *Say It, Hailan River*, Chinese Korean literature, Chinese Korean novels, Korean's view on motherland

